

‘장기기증 서약’ 3년만에 30배

광주·전남 5,729명 사상 최대...전국은 17만7천명

금주기경 선종 후 열풍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 거세진 장기 기증 열풍이 올해 역대 최대 기증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7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코노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의 병원과 공인 장기 기증 등록단체에 이름을 올린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총 17만7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전체 희망자인 7만3천여명의 2.4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전남지역도 지난 해 4천6명에서 올해는 40% 가량 증가한 5천729명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 2006년 기증 신청자 수가 18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30배나 증가한 셈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009 광주·전남 청소년 통계 분석해보니...

광주 26% “자살 고민” 전국 최고 흡연·음주·비만율은 최하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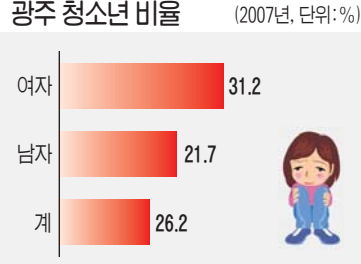
최대 고민은 “공부”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성적이나 적성, 직업, 외모 등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절반 가까운 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4명 중 1명은 자살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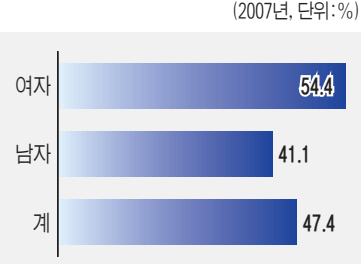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광주·전남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광주지역에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청소년 비율은 26.2%로, 전국 평균 23.7%를 웃돌았으며, 전남은 22.5%로 집계됐다. 남학생은 광주 21.7%, 전남 18.2%, 여학생은 광주 31.2%, 전남 27.1%로 각각 집계돼 여학생의 비율이 10%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광주·전남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성적과 적성 등 공부(광주 38.8%, 전남 44.0%)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광주는 직업(21.0%), 외모(20.0%), 용돈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광주 청소년 비율



광주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도



부족(4.5%) 등의 순이었으며, 전남은 직업(18.6%), 외모(16.8%), 이성교제(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광주가 47.4%, 전남은 45.5%였으며, 스트레스 인지도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았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광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07년 청소년의 흡연율은 광주 13.2%, 전남 12.5%이며, 음주율은 광주 24.9%, 전남 26.8%였다. 비만율은 광주 8.2%, 전남 8.3%로 전국 16개 시·도(평균 9.8%) 중 가장

낮았다.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99.6%를 기록한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광주 96.2%, 전남 96.0%,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광주 72.0%, 전남 69.2%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광주·전남지역 학령인구(6~21세)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각각 34만5천명, 36만4천명으로, 9년 전인 2000년의 37만5천명, 46만6천명 등에 비해 각각 3만명, 10만2천명이 줄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푸드마켓 ‘3중고’

기부자 부족·시민 인식 미흡·운영비 미반영

운영난 커질 듯

저소득층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문을 연 광주지역 푸드마켓이 고정 기부자 부족과 식품 기부에 대한 시민 인식 미흡, 내년 운영비 미반영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매달 일정금액(2만~3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푸드마켓은 서구생촌종합사회복지관과 북구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한 기부가 부족하고, 고정적인 기부 단체나 개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촌복지관 푸드마켓 관계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식품을 기부해주시는 분이 크게 부족하다”며 “또 이용자들은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을 주로 찾고 있지만 기부는 이에 못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푸드마켓은 정부와 지자체

의 지원금으로는 식료품만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 등의 기부자가 없을 경우 생필품은 매장에 진열하기 어렵다는 점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치복지관 박찬욱(27) 사회복지사는 “순수하게 기부에만 의존하는 화장지나 세제 등 생필품이 크게 부족하다”며 “또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 푸드마켓 한 곳에 대해 광주시는 올해 각각 국비 1억8천만원, 시비 4천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 푸드마켓 2곳의 시비 지원비를 8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8천만원은 각 실과의 예산 조율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올해 지원금이 남아있어 당분간 운영이 가능하며,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질오염 감시방재단 출범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담당할 ‘수질오염사고 감시방재단’이

8일 현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재단은 유역관리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환경감시팀, 순찰방제팀, 사후관리팀, 총괄팀)으로 구성됐으며, 15개 지자체와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나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추위 주춤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목포 06:24	11:3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목포 19:02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01:10	07: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여수 13:44	20:04	

“회사 지휘로 택시영업 했다면 감차 대상 아니다”

광주고법 판결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도급제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든 영업 형태나 차량 관리 등이 회사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면 도급 행위에 따른 감차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7일 D운수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차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별법 도급행위’라며 이 택시에 대한 감차를 명령했지만, D운수는 “정당한 근로계약”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공 형태가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회사를 배제한 채 영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D운수는 2007년 10월 차량 운행 수입증 오전 3만6천원, 오후 4만1천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갖는 대신 별도의 급여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A씨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별법 도급행위’라며 이 택시에 대한 감차를 명령했지만, D운수는 “정당한 근로계약”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유지비 걱정 특! 겨울철 세균 걱정 특!

[휘센 인버터 냉난방기]

1년만 사용하시면 450만원이 절약됩니다!

휘센 인버터 냉난방기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실내 공기 청정 기능이 뛰어나 겨울철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버터 기술로 소음이 적고, 전력 소비가 절감되어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WHISEN 시스템에어컨

WHISEN 구입 문의처 시스템전문점 호남

주요도시: 서울 (02-1234-5678) | 부산 (051-1234-5678) | 대구 (053-1234-5678) | 광주 (062-1234-5678) | 대전 (042-1234-5678) | 인천 (032-1234-5678) | 제주 (064-1234-5678)